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미국, 라벨링, USDA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미국, 라벨링, USDA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9.16
미국 농무부, 식품
폐기물 감축 목표 발표

2016.5
미국 상원의원,
식품기한 표기 법안 발표

2016. 12.14
미국 농무부,
식품기한 표기 권고안 발표

핵심이슈
도출

“미국 농무부, 새로운 식품기한 표기 라벨링 지침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농무부, 새로운 식품기한 표기 라벨링 지침 발표

미국 농무부(USDA)는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 2016년 12월 초 식품기한 표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200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새롭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2030년까지 미국의 음식 쓰레기를 50% 줄이겠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새로운 라벨링 지침을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 라벨링 지침에 따르면 제조사는 ‘Sell by(판매기한)’, ‘Use by(사용기한)’, ‘Best by(최상품질기한)’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혼란을 느낄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식품 안전 검사국(FSIS,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은 소비자들이 품질 보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문인 ‘Best if Used By(섭취해도 안전한 날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농무부의 식품 안전 검사국(FSI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통일되지 않은 식품기한 표기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음식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고 한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Sell by’, ‘Use by’ 등 식품 보증 기간에 대해 자의적으로 표기하였지만 서로 다른 표기방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식품 안전 검사국(FSIS)은 혼재된 표기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포장에 표기된 날짜가 지나면 음식을 폐기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증가시켰다고 보고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부 차관은 새로운 라벨링 지침에 따르면 식품에 표시된 날짜가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손실과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미국은 그동안 통일된 식품기한 표기법이 없어 식품기한 표기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미국 농무부는 2016년 12월 새로운 식품기한 표기 라벨링 지침을 발표하였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권고사항은 필수는 아니지만 식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업체들은 ‘Sell by’, ‘Use by’, ‘Best by’ 등의 문구 사용을 자제하고 ‘Best if Used By’를 사용하는 등 라벨링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